

美 “北 대량살상무기 완전 제거 원한다… 동결은 시작”

국무부, 북미협상 재개 앞두고 ‘동결 입구론’ 공식화 하향조정 의구심 불식… 유연한 접근 속 입장 구체화 주목

미국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북미협상에 있어 미국의 목표는 대량살상무기(WMD)의 완전한 제거이며 동결은 비핵화 과정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모건 오태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목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사안을 평화적으로, 외교를 통해 푸는 데 계속 전념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목표”라면서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고 우리는 분명히 WMD의 완전한 제거를 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 “동결은 절대 과정의 해결이나 끝이 될 수 없다. (동결은) 우리가 분명히 시작(beginning)에서 보고 싶은 것”이라며 “어떤 행정부도 동결을 최종목표로 잡은 적이 없다. 이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동결을 비핵화 프로세스의 입구로 공식화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 직전 비핵화의 정의와 WMD 동결, 로드맵을 향한 협력을 미국의 관심사안으로 꼽으며 동결을 입구로 설정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으나 분명하게 명시

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그리는 비핵화 및 그림이 구체화하는 것인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달 공개 강연으로 공언한 유연한 접근이 반영되는 것인지 주목된다. 오태이거스 대변인의 발언은 미국이 동결로 끝대를 옮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된 가운데 미국의 목표는 변함이 없음을 분명히 하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한 차원으로도 풀이된다. 이 논란은 핵동결에 초점을 맞춘 시나리오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지난달 30일 보도로 촉발됐으며 비건 대표는 당시 강력 부인했다. 비건 대표는 비보도 전체 브리핑에서도 미

국이 북한 WMD의 완전한 동결을 원하며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오태이거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국이 여전히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원하는 어떤 약어를 써도 된다. 나는 약어를 쓰려고 하면 발음이 잘 되지 않아서 그저 WMD의 완전한 제거라고 말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말한 것처럼 그는 김정정과 북한 주민들이 더 밝은 미래와 비전을 보기를 바라고 있다”며 북한의 과감한 비핵화 조치를 간접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오태이거스 대변인은 비건 대표의 8~11일 유럽 방문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이전에 잡혀 있던 것이라면서 “이번(유럽) 방문에서 북측 당국자들과 만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과) 접촉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일이 지금 계속되고 있고 비건 대표와 그의 팀이 애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북미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관심을 모았던 유럽에서의 양국 대면접촉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북미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판문점 회동’에서 합의한 대로 2~3주간의 준비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실무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배아 잘못 이식 남의 아이 출산 미국 병원서 황당 사건

미국 뉴욕에서 한 부부가 병원 실수로 다른 커플의 아이를 출산하는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뉴욕에 사는 동양인 부부가 로스앤젤레스의 한 난임 치료시설에서 체외수정을 통해 쌍둥이 남아를 임신, 지난 3월 제왕절개로 출산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6년 만에 얻은 아이들은 부모와 달리 외모부터 동양인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당황한 부모가 유전자 검사를 한 결과, 두 아이 모두 부모는 물론 서로도 유전자적으로 아무런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병원에서 치료받던 각기 다른 두 커플의 배아가 이 부부에게 잘못 이식됐다. 당시 병원과 의료진은 “모두 여아이며 잘못된 것은 없다”며 안심시켰다고 이들 부부는 주장했다. 출산 후 쌍둥이를 양육 중인 부부는 이달 초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하고 영구적인 심리 피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아베, 정치적 목적으로 보복”

정부 WTO서 日 수출규제 비판 … 이사회서 부당성 설명

한국은 9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백지아 주재내대표부 대사는 이날 오후 마지막 안건으로 올라온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뤄진 경제 보복이라는 점을 다른 회원국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8~9일 이틀간 예정된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는 예초 안건에 없었으나, 정부는 8일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하고 의장이 이를 수용하면서 의제로 올라왔다. 상품무역 이사회는 통상 실무를 담당하는 참사관급이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9일 회의에는 백 대사가 직접 참석했다. 백 대사는 “일본이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일본에 이번 조치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촉구했다. 백 대사는 또 일본이 수출규제의 근거로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이 현재 WTO 규범상 수출규제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일본 기업은 물론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 부정적 효과를 줄 수 있고, 자유무역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도 회원국들에 설명

했다. NHK에 따르면 백 대사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한국 뿐으로, WTO 규정에 반한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주장했던 것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백 대사는 일본의 조치가 “무역을 왜곡하는 조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가 긴급 의제로 상정되자 일본 측에서도 이날 회의에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주재내대표 일본대표부 대사가 참석했다. 일본은 TV·스마트폰 액정에 쓰이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부품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에칭 가스) 등 3가지 품목을 4일부터 포괄적 수출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허가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간주되고 있다. 일본 기업이 한국에 이 품목들을 수출하려면 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일본의 조치는 수출규제 효과를 띠게 된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1994)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수입 때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다. WTO 회의에서 양국의 의견 표명은 지난 4일 일본의 규제 발동 이후 처음 이뤄진 것으로, 교도통신은 “한국이 WTO 제소를 검토하고 있어 본격적인 통상 분쟁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불 뿜는 황소…스페인 산 페르민 축제



9일(현지시간) 스페인 북부 팜플로나의 ‘산 페르민’ 축제에서 ‘토로 데 푸에고’(Toro de Fuego·불의 황소) 복장을 한 남성들이 사람들을 뒤흔치고 있다. /연합뉴스

中 “2025년까지 위성 100기 추가 발사 계획”


중국 궈도 위성 200기 넘어서
우주궤기를 꿈꾸는 중국이 2025년까지 100기 가까운 인공위성을 추가로 쏘아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위치(余琦) 중국 국가항천국 국제협력국 부국장은 전

날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8회 세계 지리정보개발자대회에 참석해 “현재 중국의 각종 궤도 위성은 200기를 넘었다”면서 “2025년까지 100기 가까운 위성을 더 발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 장정(長征) 계열 운반 로켓은 지금까지 307차례에 걸쳐 400여 개

의 우주 설비를 우주로 보냈다”고 설명했다. 위 부국장은 특히 지난해가 중국 우주비행 분야 발전에 중요한 시기였다고 각별히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우주비행 발사활동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면서 “연간 39차례 발사해, 전세계 총 발사량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멕시코 국경서 밀입국 장사 미국 해병대원들 ‘털미’

미국 해병대원들이 멕시코와 접한 남쪽 국경에서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들한테서 돈을 받고 밀입국을 도와 주다 꼬리가 잡혔다. 9일(현지시간)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남부 국경지대에 위치한 캠프 펜들턴 기지 소속 해병대원 브라이언 로, 데이비드 살라자르-켄데로 일병은 지난주 재정정 이익을 취하고 불법 체류자들을 입국시킨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멕시코와 접한 국경 마을인 캘리포니아주 자콰바 핫스프링스에 차를 대고 국경을 넘어온 이민자들을 태워 8번 고속도로를 타고 다음 접선 장소인 인근 주차장까지 데려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넘겨준 이민자는 3명이며, 이민자들은 법정에서 밀입국 편의를 봐준 대가로 1천 달러(946만 원)를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이들 해병대원 두 명은 당국 조사에서 서로 범행을 먼저 시작한 것이라며 비난했다고 WP는 전했다. 미 제1 해병대는 성명에서 “소속 대원 2명이 불법 이민자 입국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상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부동산 추천 물건

- 토지** ▶ 전북 순창군 팔덕면 덕천리 (계획관리지역) 토지 : 3834㎡(1159.78평)
매매가 2억9천만원 강천산휴게소, 순창전통고추장민속마을 인근, 투자기초 좋음.
- 토지** ▶ 광주 동구 지산동 (자연녹지지역) 토지 : 1948㎡(589.27평), 건물 : 255.61㎡(77.32평)
매매가 26억5천만원 지산유원지 카페거리 조정가능.
- 건물** ▶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55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상권최상, 수익률최상.
- 건물** ▶ 광주 광산구 월곡동 (준주거지역) 토지 : 1686.5㎡(510평) 건물 : 3000.8㎡(907.74평)
지상2층 매매가 : 45억 아파트밀집지역, 중심상권.
- 건물** ▶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32억 현 사우나 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병원** ▶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산업단지 인근.
- 병원** ▶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의료시설** ▶ 함평군 월야면 월거리 토지 : 11139㎡(3369.5평) 건물 : 5530.56㎡(1612.5평)
감정가 : 40억3천만원 최저가 : (45%) 18억7백8십만원
- 의료시설** ▶ 광주 북구 신안동 토지 : 645㎡(195.1평) 건물 : 1296.18㎡(392.1평)
지하1층 지상6층 감정가 : 14억5천3백만원 최저가 : (56%) 8억1천4백만원
- 공장** ▶ 곡성군 삼기면 경악리 토지 : 88181㎡(26674.8평), 건물 : 15264.64㎡(4617.6평)
지하1층지상3층 감정가 : 124억3천8백7십만원 최저가 : (29%) 35억6천6백5십만원
- 공장** ▶ 해남군 화산면 관동리 토지 : 3769㎡(1137.1평) 건물 : 2040.5㎡(617.3평)
지상1층 감정가 : 14억8천8백만원 최저가 : (45%) 6억6천6백8십만원
- 창고** ▶ 광주 남구 서동 토지 : 396㎡(119.8평) 건물 : 239.15㎡(72.3평)
감정가 : 5억8백7십만원 최저가 : (70%) 3억5천6백만원
- 근린시설** ▶ 광주 서구 풍암동 1114번지 토지 : 1500.2㎡(453.811평) 건물 : 6759.99㎡(2044.897평)
감정가 : 65억2천3백5십만원 최저가 : 65억2천3백5십만원
- 숙박시설**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토지 : 2042.2㎡(617.8평) 건물 : 2735.49㎡(827.5평)
지하1층지상5층 감정가 : 24억4천5백8십만원 최저가 : (36%) 8억7천6백6십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